



Noblesse

9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

TIFFANY & Co.



젊은 그레이 컬러 팬츠 슈트와 핑크 블러카드란 코르사 주로 로맨틱한 느낌을 살렸다. 슈트는 사치(Satch), 톱은 사바(Saba)로 오스트레일리아 디자이너 제품. 코르사주는 도쿄의 이세한 백화점에서, 핑크 레이스업 슈츠는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것.



TOKYO TIMELESS BUT DISTINCTIVE

Erica Angyal, Nutritionist & Consultant on Inner Health & Beauty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강하게 불고 있는 웰빙 트렌드의 열풍. 그속에서 진정한 웰빙에 대한 연구를 하며 건강과 아름다움 등에 대한 웰빙 컨설팅과 강연을 하고 있는 에리카 앤자이얼은 얼마 전, 30일 안에 피부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제시한 <Gorgeous Skin in 30 Days>라는 책을 발

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영양학자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직업이니만큼 그녀에게 있어 깔끔한 의상은 필수! 그래서 자연스럽게 슈트와 그녀는 땀 빼야 땀 빼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트렌디한 것보다는 클래식하고 타임리스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그녀는 평상시에는 켈빈 클라인이나 아르마니 등의 우아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의 슈트를 즐겨 입는다. 들레 엔가바나리프 츠 슈트도 그녀가 무척 아끼는 아이템. 컬러 역시 무난한 블랙, 그레이, 네이비, 캐벌, 브라운 등의 무채색이나 내추럴 컬러를 선호한다.

"여기서 9년 넘게 지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도쿄에서는 조금은 과감하게 꾸밀 필요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더 여성스럽고 대담한 스타일을 시도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블랙 슈트라도 컬러풀한 디테일이나 라이닝 등이 가미된 것을 입는 거죠.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네요.(웃음)"

그녀가 슈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최고급'이어야 한다는 것! "물론 옷장에 있는 모든 옷들이 최고급일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슈트는 예외인 것 같아요. 제대로 고른 슈트는 타임리스한 패션 아이템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어떤 소재가 사용되었는지, 테일러링이나 커팅이 정교한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녀는 우선 심플한 기본 스타일 슈트부터 시도하면서 점차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냈다고. "저에게는 싱글 버튼 슈트가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물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알아낸 사실이에요. 소재는 울처럼 시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뷰티 관련 업계에 종사해서인지 컬러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잘 고르면 눈의 색깔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고, 헤어 컬러와 피부 톤도 훨씬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녀가 알려준 쇼핑 팁 역시 테레사와 마찬가지로 슈트를 구입할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상을 미리 생각한 후 그에 어울리는 쉐츠나 스커트를 함께 구입해두라는 것. 그러면 그 슈트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다양해질 수 있으니 말이다. 또한 그녀는 포인트를 주는 액세서리를 자주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 포멀하고 클래식한 슈트에 실크 홀터넥 탑이나 글리터링한 슈즈, 상들리에 이어링 등을 매치해 오히려 드레시한 느낌을 살려내는 것이 그녀만의 노하우라고. 여기에 고급스러우면서도 컬러풀한 백까지 가미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의상만큼 그 사람 내면의 자신감과 아름다움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옷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즐겁기 위해 입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라는 세심한 멘트를 잊지 않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웰빙 전도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Stylish & Feminine Suit Style for Her

상화이트 스커트 슈트에 세심한 블랙 톤으로 깔끔하면서도 한결 세련된 느낌을 준다. 슈트는 스페인 디자이너의 제품이며, 톱은 구찌 제품.

☆ 블랙 재킷 밑단의 컬러풀한 리본이 색다른 느낌을 주는 재킷과 서로 다른 소재의 믹스매치가 돋보이는 블랙 스커트, 포인트를 주는 핑크 브루셔 모두 크리스찬 리크로와 제품. 여기에 액세서리가 그대로 붙어 있는 로에베의 레드 크로커 다일 슈즈와 프리다의 크로커다일 백을 매치했다. 코르사주가 달려 있는 블랙 모자는 투칸, 다크 그린 컬러가 매력적인 링은 지오로 제품.